

광주 장애인 육상 3남매 '3관왕 금빛 신화' 이어간다

김천천·지혜·선정 남매...1월부터 기록 단축 위한 동계훈련 돌입 국가대표 지혜는 선수촌 입촌...파리 패럴림픽 출전 위해 '구슬땀'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이하 전국체전) 3관왕의 영예를 올 때도 지속하기 위한 육상 3남매의 '겨울 담금질'이 시작됐다.

광주시 장애인육상연맹 소속 김천천(24·한전KPS), 김지혜(18·호남대 1년), 김선정(17·세광고 학교) 남매가 지난해 전국체전 이후 한 달여의 휴식을 끝내고 1월부터 한 단계 더 도약을 위한 동계 훈련에 돌입했다. 1남4녀 중 맏이인 천천과 넷째인 지혜는 필드 종목(원반던지기, 포환던지기, 창던지기)에서, 막내 선정은 트랙 종목(100m, 200m, 400m)에서 기록 단축을 위해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한 것이다. 목표는 불과 2개월여 전에 자신들이 이뤄낸 전국체전 기록을 경신하는 것.

지난 전국체전에서 김천천은 F13(시각장애) 남자 창던지기에서 30m42, 원반던지기 29m57, 포환던지기 9m84의 기록으로 3관왕 소식을 전했다. 지혜도 F13 여자 창던지기 21m27, 원반던지기 22m98, 포환던지기 7m06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3종목 모두 한국신기록이다. 또한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 3관왕을 차지하면서 단 한 명에게 주어지는 '신인선수상'의 영예도 안았다. 막내 선정도 첫 출전한 전국체전에서 400m(1분19초70), 200m(33초59), 100m(16초47)를 각각 1위로 달리면서 놀라운 신고식을 치렀다. 이같은 3남매의 눈부신 활약은 광주광역시(금 68, 은 74, 동 55)가 전국체전 종합 5위로 도약하는데 큰 힘이 됐다.

지난 2일 그 감동을 올해도 이어가기 위해 구슬땀 흘리고 있는 장애인국민체육센터를 찾아가 3남매를 만났다. 간단한 운동복 차림에 해맑은 표정으로 아직 옛되어 보이는 이들이 전국대회 3관왕의 실력자들이라는 사실이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동계 훈련은 광주시 장애인체육회 육상 전문 지도자인 박영식(36·광주시 장애인육상연맹) 코치의 지도로 진행되고 있다. 1주일은 5일 훈련에 2일 휴식, 하루 훈련시간표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자체 연습과 기초체력 단련, 오후 2시30분부터 5시까지 체력훈련이다. 단 선정이 경우는 아직 휴식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오전 훈련 없이 오후 체력훈련에만 합류하고 있으며, 일주일에 이들은 연주체육관 4층 실내 트랙에서 실전훈련을 갖는다. 매일 반복되는 훈련에도 피곤한 기색 보다는 되레 즐기는 듯한 표정에서 그들만의 여유가 엿보인다.

3남매를 4년 동안 지도해 온 박영식 코치는 "이들 모두 성실한데다 도전정신도 강하고 체력조건도 좋아 세계적 선수로 커 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셋 다 긍정적인 성격에 고된 훈련도 잘 이겨냄으로써 훈련의 효율성도 훨씬 높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천천은 올해 두 가지의 목표를 세웠다. 첫 번째는 지난해 전국체전의 3관왕 타이틀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다. 이번 동계훈련을 통해 지난 2022년 원반던지기에서 세웠다가 내어준 한국신기록을 되찾겠다는 각오이다. 두 번째는 올해 11월 특수교사 임용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다. 조선대 특수교육학과 출신으로 중등 2급 교사 자격증이 있는 데다, 박 코치의 조언에 따라 공부와 훈련을 병행하면서 '두 마리의 토끼'를 잡겠다는 기세이다.

'한국신 3관왕' 지혜의 꿈은 아쉽게 세계로 향한다. 지난해 7월 태극마크를 단 지혜는 이달 중 경기도 이전을 앞둔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촌에 들어가 각종 세계대회를 준비하게 된다. 아쉽게도 지금까지 국제대회에 출전한 적이 없는 관계로 패럴림픽



광주월드컵경기장 옆 트랙연습장에서 가볍게 몸을 풀고 있는 육상 3남매.

픽 기준 기록도 없어 오는 9월 열리는 프랑스 파리 패럴림픽 출전 여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하지만 오는 3월 이탈리아 그랑프리하고 5월 고베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좋은 기록을 획득한다면 파리행 티켓이 전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이에 지혜는 조금해하지 않고 4년 후 패럴림픽을 내다보고 있다. 박 코치는 "현재의 기량과 정신력으로 노력한다면 다음 일본 패럴림픽 출전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고 예상한다. 세계무대에 나서게 될 지혜는 이번 훈련 기간 중 포환던지기의 고난도 기술 중 하나인 한발로 중심 잡는 훈련에도 집중

하고 있다. 게다가 지혜의 선수촌행에 박 코치의 합류 가능성도 있어 선수촌 훈련이 지금처럼 편안하게 진행된다면 지혜의 기량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운동하는 데도 바쁜 그도 오빠처럼 훈련 틈틈이 학업에 열중해 제과-제빵 자격증까지 갖춰 특유의 근성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막내 선정의 포부도 오빠-언니에 뒤지지 않는다. 지난해 처음 출전에 1위를 휩쓴 100m·200m·400m에서 올해도 3관왕 유지는 물론 400·200m는 한국신기록에 도전하겠다는 당찬 목표를 세웠다. 항상 오빠와 언니의 응원 속에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과 의지로 더욱 뜨겁게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훈련이 없는 날에는 웹툰을 즐겨보고, 아이유 노래도 자주 듣는다는 고교생 세정의 해맑은 표정이 어찌 보면 오빠-언니보다 더 여유 있어 보인다. 여기에 격없이 이들을 지도하는 박 코치도 마치 삼촌처럼 이들과 함께 호흡을 맞춰 환상의 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여세를 몰아 지난해 전국체전에서 감동을 줬던 3남매의 '금빛 스토리'가 올해도 계속 이어질 길 기대해 본다.

/글·사진·서승원 기자 swseo@kwangju.co.kr

'빙속여제' 김민선, 월드컵 6차서 '트랙 레코드' 금메달

여자 500m 7회 연속 메달 행진

신(新) 빙속여제 김민선(의정부시청·사진)이 월드컵 여자 500m에서 트랙 레코드(경기장 최고 기록)를 세우며 7회 연속 메달 획득에 성공했다.

김민선은 4일 캐나다 퀘벡에서 열린 2023-2024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6차 대회 여자 500m 1차 레이스에서 37초69를 기록, 2위 펌프 푼(네덜란드·37초70)에게 0.01초 차로 앞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민선은 2022년 자신이 세웠던 트랙 레코드를 0.45초 앞당겼다.

9주 아웃코스에서 미국의 에린 잭슨과 함께 출발한 김민선은 첫 100m 구간을 전체 1위 기록인 10초41에 통과했다.

마지막 인코스를 빠져나온 뒤 직선주로서 전력 질주한 김민선은 출전 선수 20명 중 가장 빠른 기록으로 결승선을 끊었다.

김민선은 지난해 11월에 열린 월드컵 2차 대회 여자 500m 2차 레이스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이후로 월드컵 여자 500m에서 7회 연속 메달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랭킹포인트 60점을 추가한 김민선은 460점으로 2위 자리를 유지했다. 1위는 474점을 쌓은 잭슨이다.

김민선은 5일 열리는 500m 2차 레이스에서 역전 종합 우승을 노린다.

함께 출전한 이나현(노원고)은 38초72의 기록으로 13위에 올랐다.

스피드스케이팅 장거리 간판 정재원(의정부시청)은 대회 남자 매스스타트에서 7분56초11의 기록으로 2위를 차지했다.

1위는 7분56초06을 기록한 일본의 사사키 쇼무였다.

레이스 막판까지 7~8위권에서 기회를 엿보던 정재원은 마지막 바퀴를 남기고 선두권에 합류했고, 마지막 곡선 주로에 접어들면서는 2위까지 올라섰다.

선두 사사키의 뒤에 바짝 붙어 곡선 주로를 통과한 정재원은 직선 주로에서 전력 질주했으나 간발의 차로 밀려 두 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함께 출전한 이승훈(알펜시아)은 8위에 이름을 올렸다.

랭킹포인트 54점을 추가한 정재원은 269점을 쌓아 종합 랭킹 2위로 마무리했다. 1위는 이탈리아의 안드레아 조반니니(274점)가 차지했다.

한편 정재원은 남자 1,500m에서 1분47초38로 13위, 안현준(성남시청)은 1분47초76으로 16위를 기록했다.

남자 500m 1차 레이스에서는 김준호(강원도청·34초99)와 조상혁(스포츠투토·35초16)이 각각 8위와 14위에 올랐다.

박재은(한국체대), 김민지(서울일반), 강수민(고려대)으로 이뤄진 여자 팀 스피드 대표팀은 1분31초56의 기록으로 6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승점 자판기 된 '敗퍼스'...20연패 불명예 눈앞

한국도로공사에 1-3 지며 19연패

페퍼스가 '단일 시즌 최다 연패 타이 기록'을 코앞에 두고 있다.

프로여자배구단 페퍼저축은행 A페퍼스는 3일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2024 V-리그 한국도로공사와의 홈경기에서 세트 점수 1-3(24-26 19-25 25-17 17-25)으로 지며 19연패를 기록했다.

여자부 단일 시즌 최다 연패 기록인 20연패 타이 기록 갱신까지는 한 번의 패배만을 앞에 두고 있다. 단일 시즌 최다 연패는 KGC인삼공사(현 정광장)가 2012-2013시즌에 쓴 20연패다.

현재 2승 24패, 승점 7점으로 유일하게 한자리 수 승점을 기록하며 최하위에 자리한 페퍼스는 6위 한국도로공사와의 승점 차도 21점 벌어져 있다.

한편, 도로공사(9승 17패·승점 28)는 승점 3점을 따낸 이번 경기로 5위 IBK기업은행(11승 14패·승점33)과의 점수차를 5점으로 줄였다.

1세트에서 접전을 펼친 페퍼스는 22-22동점을 내준 이후 역전 당했다. 24-24 듀스에서 야스민의 공격이 도로공사 배유나의 손에 걸려 점수를 내줬고, 24-25에서 공격 범실이 나오며 어렵게 세트 점수를 내줬다. 2세트에서 19-25로 일방적으로 진 페퍼스는 3세트에서 세트 점수를 따내며 분위기를 회복해보려 했지만, 4세트에서 큰 점수 차로 패배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박정아가 15득점, 이한비와 필립스가 각각 13득점, 12득점을 올렸지만 팀의 패배로 빛이 바랬다.

리베로 오지영은 이날 오랜만에 경기를 뛰었지만 연이은 실수로 아쉬운 경기를 펼쳤다. 오지영은 지난 1월 7일 열린 4라운드 흥국생명전부터 5경기에 출전하지 않았다. 주요 야스민은 경기 막바지 고질적인 어깨 통증을 호소하며 코트 밖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야스민은 29.3%라는 평소보다 낮은 공격 성공률을 기록하며 이날 10득점만을 올렸다. 야스민의 이번 시즌 평균 공격성공률은 41.7%다.

어느새 창단 3년차지만 아직 반듯하지 못하며 '단일 시즌 최다 연패 타이 기록'이라는 불명예까지 안게 될 위험에 놓인 페퍼스다.

이번 시즌 국가대표 출신 '대어' 박정아와 검증된 외국인 선수인 야스민까지 투입되며, 선수단 구성으로는 타 팀에 절대 밀리지 않는다는 평가에 상반되게 팀 성적은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 4라운드 이후 가진 '울스타 브레이크'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팀의 분위기를 재정비 할 시간이 있었으나 페퍼스가 이 기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무엇보다 선수들이 갖는 패배 의식은 연패 탈출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는 만큼, 팀의 사기를 증진시켜 페퍼스가 '한 팀'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는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페퍼스는 오는 6일 GS칼텍스와 홈경기를 앞두고 있고, 오는 10일 화성종합실내체육관에서 IBK기업은행과의 경기를 펼친다.

남은 두 경기 안에 연패를 끊지 못할 경우 단일 시즌 최다 연패 신기록을 쓰게 되는 페퍼스가 더 이상의 불명예를 막기 위해 내릴 조치에 관심이 쏠린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LOTTE CINEMA | 증장로관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즐거움 문화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왕카
- 2관 시민덕희
- 3관 위시
- 4관 시민덕희
- 5관 왕카
- 6관 왕카, 신차원! 쟁구는 못말려 더 무비 초능력 대결전 ~날아라 수제김밥~
- 9관 외계+인 2부
- 7관 새배를 서울의 봄, 길위에 김대중
- 8관 새배를 노량: 죽음의 바다, 신차원! 쟁구는 못말려 더 무비 초능력 대결전 ~날아라 수제김밥~, 길위에 김대중, 아름 새로운 시작



GAC 포시즌 뮤지컬 마리쿠리
 일시 : 2024-03-02(토) ~ 2023-03-03(일)
 14:00, 18: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613-8233



GAC 공모전시 정송희 개인전 (드라마보다 드라마틱한 순간)
 일시 : 2024-01-17(수) ~ 2024-02-18(일)
 공연 있는날 10:30 ~ 19:30
 공연 없는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